

杜南 先生の 經濟理論： 『第二資本論』에서의 價値論을 中心으로⁽¹⁾

金信行 · 洪起玄

杜南 林元澤 선생의 저서 『제2자본론』에 나타난 가치론은 勞動價値論과 效用價値論을 절충한 것으로서, 쾌락과 고통의 차이를 단일한 지표로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支配勞動價値論에 입각한 것이다. 두남 선생은 이러한 가치론을 바탕으로 (1) 효용-노동 이원기준교환, (2)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3) 부등가교환이란 세 가지 교환법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만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두남 선생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속제2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일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두남선생의 가치론에 대한 업적은 아담 스미스, 마셜, 나아가 스라파로 이어지는 영국 경제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들어가는 말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는 필경 재화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 이래로 이 가치규명의 연구가 이른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가장 주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었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資本論』이 탄생된 이래 재화 가치를 투하노동으로 설명하는 가치론의 위치는 전체 경제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價値論에 대비하여 근대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에 바탕을 둔 主觀的 價値論을 제시함으로써 가치론의 양대 조류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학의 근본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한 학자의 한 분이 杜南 林元澤 선생이다.

두남 선생은 제자들의 양성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겨 놓았다.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주목을 받는 선생의 경제학 업적은 아마도 선생의 『第二資本論(1978)』과 그 속편으로서 발간된 『續第二資本論(1992)』의 두 저서일 것이다. 이 두 권의

(1) 필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서 杜南선생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만약 선생의 이론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필자들의 이해도 부족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두남선생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표된 글을 고친 것으로 당시 참석했던 관련 교수들에게 감사드린다.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杜南 선생의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두 저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하면서 선생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와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두남의 저서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로부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문헌들을 탐독하고 독특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저서인 까닭에 짧은 지식으로 선생의 글을 일일이 논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선생의 방대한 경제학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그 의의를 찾는 작업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第二資本論』에 나타난 價値論을 중심으로 이론의 핵심을 소개하고, 그 논리적 확대로서 재생산론, 경기변동론을 언급하여 이론적 입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價値論과 變動論의 이론적 역사를 간단히 소개한 후, 3장에서는 두남 선생의 가치론의 핵심을, 4장에서는 가치론의 입지와 그 적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마지막 장은 간단한 요약과 교훈을 담고 있다.

2. 理論的 背景

두남 선생의 이론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고전학과 경제학(맑스 포함), 신고전학과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현대경제학에 나타난 미시적인 가치론과 거시적인 경제 변동론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 두남 선생의 나름대로의 학설사관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므로, 간략히 가치론의 흐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학설사를 살펴봄으로써 두남 선생 價値論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1. 效用價値論과 勞動價値論

일반적으로 가치론이란 가격현상의 根底에 있는 핵심적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는 이론적 작업으로, 대체로 效用價値論과 勞動價値論의 양대 흐름으로 대별된다.

효용가치론이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신학에서부터 제시되던 입장으로 상품 교환가치의 기본적 결정요인이 인간의 만족도, 즉 效用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마도 당시 자급자족을 위한 필수품보다는 편의품과 사치품이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거나, 인간 노동을 원죄의 산물로 보는 신학적 입장이라는 상황적 조건에 의해 효용가치론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효용가치론은 시기는 오래 되었지만, 18세기 말에 나타난 영국 고전파 경제학에 의해 일거에 경제사상의 뒷면으로 몰려나게 된다.

잘 알려지다시피 아담 스미스는 상품의 使用價値(효용)과 交換價値(교환비율)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물과 다이아몬드의 예를 제시하면서 勞動이 가

치의 척도이자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値論에서 더욱 분명하게 되어, 단순히 노동이 가치의 척도라는 명제에서 나아가 교환가치가 투하노동량에 비례한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다. 물론 어떤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투하된 노동량에 비례하여 가격이 결정되려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과 도구나 재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의 비율이 상품마다 모두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노동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이윤율을 고려하여 가격에 算入되기 때문에 직접노동과 간접노동의 비율이 상품마다 다르면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리카도는 투하노동량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명제는 근사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맑스는 비록 개별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가치론이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잉여가치 총량이 지불되지 않은 노동, 즉 착취된 노동이라는 명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남 경제이론에서 投下勞動價値論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지만, 이론체계 형성에 있어서 리카도와 맑스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가치론은 결국 1870년대 새로 개발된 限界效用價値論에 의해서 비판받게 되고, 결국 주도적 위치를 내주고 만다. 영국의 제본스(Jevons), 스위스의 왈라스(Walras), 오스트리아의 멩거(Menger) 3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효용가치론에서는 한계효용 개념을 채택하여 가격과 한계효용 간의 비례관계를 엄밀하게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일견 아담 스미스가 제기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논리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더 주된 변화 동인은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 선택이 집단의 관습적 소비를 대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계주의자라고 불리는 3인의 혁신적 성과는 고전과 경제학을 대체하면서 경제학에서 영향력을 늘려가게 되었는데, 다만 영국에서는 古典派 經濟學과 새로 등장한 限界主義 經濟學을 절충하려는 마셜(Marshall)의 입장에 따라, 비교적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마셜의 입장이 가장 두남 경제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두남 선생이 노동과 효용의 양 측면을 고려하면서 가치론을 정립하려고 한 데서 잘 나타난다.

2.2. 投下勞動價値論과 支配勞動價値論

영국 고전파의 노동가치론에도 사실 세분해서 보면 投下勞動價値論과 支配勞動價値論의 두 입장으로 나뉜다. 이 구분은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발된 것으로, 投下勞動(labor embodied)이란 상품에 투입된 노동량을 의미하며, 支配勞動(labor commanded)

은 상품을 판매하여 살 수 있는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하노동가치론은 가치의 척도와 결정요인을 설명하려는 인과적 이론이지만, 지배노동가치론은 단순히 가치의 척도만 노동시간을 쓴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수요-공급설과 양립할 수 있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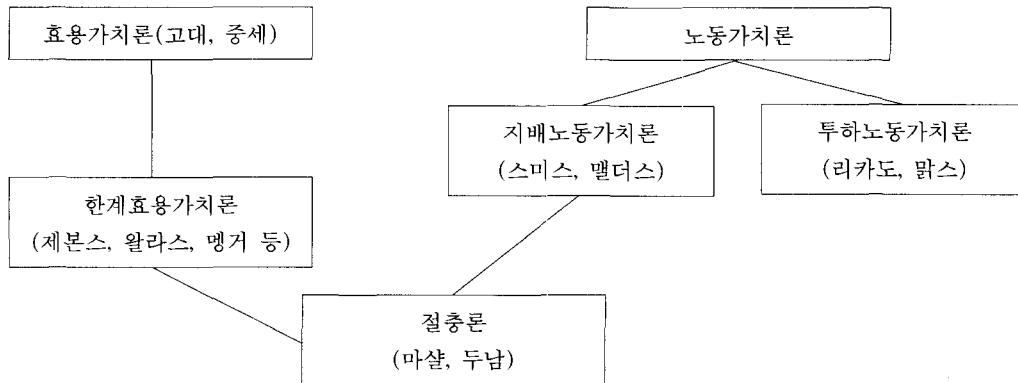
아담 스미스는 자본축적이 없고 토지 사유가 없는 미개상태에서는 투하노동가치론이 적용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노동가치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결국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공급측 요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담 스미스의 기본적 입장은 맬더스(Malthus)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맬더스는 명시적으로 지배노동량은 수요와 공급 양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비율이 정해져야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스미스나 맬더스나 한 상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어떻게 임금, 이윤, 지대와 가격이 각종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서 동시에 결정되는지에 대한 一般均衡的 설명을 하려는 엄밀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비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에서 단초가 발견되는 投下勞動價值論을 자본주의 경계에까지 적용하였고, 생산비설이 다름 아닌 투하노동가치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리카도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는 농업과 같은 경우에 차액지대가 발생하므로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토지의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이 토지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리카도의 이론은 맑스에게서 더욱 강화되어 맑스는 생산비가 일정한 상태를 전제하고 상품의 가치가 투하노동에 비례한다는 소위 '價值法則'(law of value)이 자본주의 경계에서도 관철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자본주의의 본질이 파악된다고 생각했다. 즉 맑스는 투하노동가치론이 현실의 본질적인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여 잉여가치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착취된 노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효용가치론과 노동가치론의 양대 가치론을 축으로, 노동가치론이 다시 지배노동가치론과 투하노동가치론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두남선생의 가치론은 效用價值論과 支配勞動價值論을 절충한 독특한 입장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편리한 이해를 위해 도식적이지만 가치론의 계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양대 노동가치론은 노동량을 가치의 척도라고 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유사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수요의 영향을 인정하는가, 나아가 잉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양대 이론적 입장에서



〈그림 1〉 價値論의 흐름

물론 두남 선생의 경제이론은 支配勞動價値論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두남 선생의 독창적 측면은 수요측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效用-勞動 2원기준교환’이라는 개념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部分的 過剩生産論과 一般的 過剩生産論

경제이론은 가격을 주로 설명 대상으로 하는 微視經濟學과 국민소득 전체의 변동을 설명 대상으로 하는 巨視經濟學으로 나뉘는 바, 후자에 속하는 經濟變動論을 다시 둘로 나누면 부분적 과잉생산론과 일반적 과잉생산론으로 나눌 수 있다.

部分的 過剩生産論이란 가격기구의 조정에 의해 시장경제에서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조정과정에서 몇 산업에서 부분적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중반까지의 고전파 경제학과 20세기 중반까지의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대체로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양 학파는 설명방식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맬더스를 제외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축을 하는 이유는 장래 투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축액과 투자액은 자동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재화를 생산할 때 발생한 소득은 지출되므로 ‘供給은 需要를 창조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의 法則(Say’s Law)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식의 기계적인 세이의 법칙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저축과 투자가 이자율을 통해 조정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는 같아지는 均衡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고전파의 해석을 세이의 恒等式(Say’s Identity), 신고전파의 설명을 세이의 等式(Say’ Equal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떠한 해석이건 간에 부분적 과잉생산론은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과잉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케인즈(Keynes) 경제학과 대비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을 이론적으로 해명한 케인즈는 불황기에 민간 전체의 비관적 전망에 의해 투자가 위축되면 총수요가 부족하여 실업이 만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나아가 케인즈는 자신의 견해가 과거 고전파에서 過剩生産(gluts)을 설명한 맬더스의 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리카도 경제학의 독세에 의해 경제학은 퇴보하였다고 고전파와 신고전파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우연적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가격이론에서 맬더스와 케인즈가 모두 지배노동가치론을 지지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치론과 변동론의 구분을 두남 선생의 경제이론에 적용시켜 보자면, 선생 자신도 말하고 있듯이 자신은 支配勞動價值論과 一般的 過剩生産論을 지지하고 있다.

3. 『第二資本論』의 3가지 交換法則

3.1. 財貨의 屬性과 交換基準

『제2자본론』의 모두에서 두남은 다음과 같이 재화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Marx는 그의 『資本論』에 있어서의 理論展開를 「商品」의 分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第二資本論』에 있어서의 理論展開를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의 規定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 理由는, 「財貨」의 概念이 「商品」의 概念보다 理論的으로나 歷史的으로나 先行되고 있는 概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택(1978, p. 3)]. …”

두남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서 財貨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使用價值, 勞動, 勞動對象, 그리고 勞動手段의 네 가지를 든다. 자연자원과 같이 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노동대상이 되고, 이것은 자본재와 같이 생산된 생산수단인 노동수단과 구별된다. 이 네 개의 조건들은 재화가 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들이다. 사용가치는 소비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효용을 제공하든가 자본재와 같은 생산수단으로서 생산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모든 재화의 유용성을 포괄한다.

財貨의 물리적 조건은 또 다시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심리적 인

간의 입장에서 노동은 주관적 필요요소로서 직접노동이 되고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은 간접노동이 된다. 다음으로 사용가치는 주관적 필요요소인 효용으로 전환된다. 객관적으로 물리적 조건을 갖춘 재화를 위와 같이 직접, 간접의 노동으로, 그리고 사용가치를 효용으로 전환시키는 데 매개역할을 하는 심리적 인간은 고통과 쾌락을 누리는 주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心理的 人間이란, 「快樂」(pleasure) 또는 「苦痛」(pain)을 感覺하며, 또 「快樂」을 極大化하고 「苦痛」을 極小化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는 主體이며, 物理的(生理的) 인간의 一側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임원택(1978,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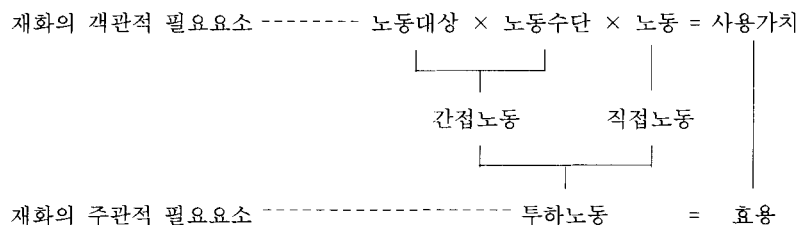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재화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제2자본론』 21쪽에 제시된 <그림 2>와 같은 개념도이다.

이러한 재화 개념을 바탕으로 두남 선생은 교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재화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극소화하고 이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心理的 人間の 의도적인 행위에 따라 교환의 법칙이 나온다. 이 법칙은 심리적 인간의 의도적인 역할에 따라 효용과 노동이 일치되는 效用-勞動 二元化의 기준으로 귀결된다.

3.2. 3가지 交換法則

『제2자본론』에서는 효용·투하노동의 二元化의 원리를 채택하면서 다분히 인간과 재화와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 心理主義를 강조한다. 이 심리주의가 효용으로 표출되고 교환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 교환에서 교환인여를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의지, 의식, 그리고 의도로부터 교환이 정립되며, 다음과 같이 교환과정에서 성립하는 법칙은 3가지가 제시된다.

交換法則 I(效用과 勞動의 二元化基準): 이 법칙은 노동과 효용의 양면을 고려하고 있



<그림 2> 財貨 屬性의 概念圖

기 때문에 효용측면을 강조하는 한계효용론자에게 없는 효용노동량의 개념을 포괄한다. 『제2자본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Walras · Wicksell · Jevons 等の 效用一元基準交換理論을,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抽象的」 「歴史的」 「特殊的」 形態로서 規定지으려고 하는 바이다(임원택(1978, p. 104)).”

물론 주관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효용과 객관적인 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을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苦痛과 수고’(toil and trouble)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여 효용과 같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두남 선생의 생각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노동을 非效用(disutility)라고 생각하는 제본스와 같은 한계주의자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통을 측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남 선생은 스미스와 같이 고통은 시간과 같은 단위로 통약할 수 있는(commensurable)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완전히 개인적 심리 차원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인 간 선호 비교의 불가능성을 일반적 원리로 보는 한계주의자에 비해서, 두남 선생은 평균적인 인간의 경우 쾌락과 고통을 공통된 척도로 평가하여 동일한 척도인 노동량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交換法則 II(需要와 供給 兩 要因에 의한 價格 決定): 『제2자본론』에서는 한계효용노동이 사상되어 버린 데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에 의한 상대가격 결정이라는 교환법칙 II를 왈라스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즉 이 책에서는 왈라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以上에서 紹介한 Walras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이, ① 「因果的 說明方法」에 의해서 展開되고 있으며, ② 「價格變化를 통한 不均衡調整」 方法, 즉 「價格 → 數量」 接近方法을 採擇하고 있다는 點에 관해서 마땅히 注意를 기울여야만 될 줄 생각한다(임원택(1978, pp. 108-109)).”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價格 → 數量」의 因果的이라는 것과 「價格變化를 통한 不均衡調整」의 두 가지 점이다. 시장경제의 불균형의 조정에 있어 인과관계에 의해 가격과 수량

의 두 변수 중 어느 하나의 선행변수가 있고 이로부터 다음 변수가 조정을 받고 불균형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환법칙 I과 II는 物物交換經濟뿐만 아니라 貨幣經濟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폐에 대한 『제2자본론』의 정의 역시 뚜렷하다. 그것은 효용-투하노동의 二元기준과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교환수단과 일반적 가치척도로서의 일반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환화폐와 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등장한 통화이어야 한다. 물론 이 요건에 가장 적합한 것은 금(gold)이다. 이에 대하여 『제2자본론』은 멩거의 기여를 강조한다.

“즉 Menger에 있어, 貨幣는, ① 「效用」이었고, ② 「最大販賣力을 갖고 있는 效用」(「最大通用性을 지니고 있는 效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Menger의 「商品의 販賣力」에 관한 理論을 貴중한 理論的 遺産으로서 繼承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Menger의 「商品의 販賣力」에 관한 理論만이 貨幣의 「自然的」인 一般的 交換手段機能을 解明할 수 있는 唯一의 正當한 見解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원택(1978, pp. 165-166)).”

위와 같은 화폐의 개념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든가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순수 물물교환경제 모형에서의 효용-투하노동의 二元化기준이 화폐를 포함시킨 교환경제모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환법칙 I과 II가 성립한다.

交換法則 III(不等價交換): 다음으로 교환법칙 I과 II를 바탕으로 교환법칙 III이 따라 나온다. 아마도 『제2자본론』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제3의 교환법칙이 아닌가 싶다. 제I과 제II의 법칙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노동의 不等價交換이 수반된다는 것이 제III의 교환법칙이다. 교환에 따른 投下勞動과 支配勞動의 차이가 바로 부등가교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투하된 노동 이상으로 가치가 정해져서, 그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얻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배노동시간은 투하노동시간보다 크게 된다. 물론 支配勞動量은 두남선생의 용어법에 따라 재화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效用勞動量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남 선생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를 도식화해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不等價交換): 상품의 가치 = 지배노동량 > 투하노동량

상품의 잉여가치 = 지배노동량(효용노동량) - 투하노동량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두남선생의 이론체계에서 맑스의 방식을 따라서 經濟發展段階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이론들을 입지시켰다는 점이다. 杜南선생은 (i) 재화와 재화가 직접 교환되는 物物交換, (ii) 한 재화와 다른 재화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환되는 單純商品生産, (iii) 화폐가 자본으로 먼저 선대된 후 원료와 임금재로서 재화를 구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다시 화폐화하는 資本主義生産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한다. 화폐를 G , 재화를 W 라고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나타날 수 있다.

(i) 물물교환: $W - W'$

(ii) 단순상품생산: $W - G - W'$

(iii) 자본주의적 생산: $G - W - G'$ (단 $G' > G$)

그런데, 두남 선생은 맑스와 마찬가지로 물물교환경제와 단순상품생산단계에서는 부등가교환이 事後的(ex-post)으로 우연히 나타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경제에서는 이 부등가교환이 事前的(ex-ante), 計劃的으로 교환 이전에 준비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간과 재화 간의 자연적인 관계가 교환이 일어나면서부터 재화를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 간의 社會的 關係가 전개된다. 이 사회적 관계에서 지배노동과 투하노동 간에 불일치가 있게 되고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상대방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이 투하한 노동량 단위로 표시된 재화와 교환에 있어 노동량 기준으로의 손익을 계상하기 어렵다[임원택(1978, pp. 141-142)]. 그러므로 物物交換經濟 또는 貨幣經濟에서는 부등가교환이 사후적으로 나타날 뿐 사전적으로는 감지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貨幣(G)를 先貸하여 中間財(P_m)를 구입하고 勞動(A)을 고용하여 재화를 생산(P)한 다음 이것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資本主義的 生産經濟에서는 위의 두 교환경제와는 다르게 부등가교환의 발생이 사전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이 나타난다. 자본가의 사전적인 예상 아래서 투자가 계획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판매가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제2자본론』에서 完全商品의 속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완전상품은 공급과 동시에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가격에서 즉각적으로 전량 판매될 수 있는 재화를 뜻한다. 이와 같이 판매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생산경제에서는 가격 대신 수량에 의해서 불균형이 조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앞서의 두 교환경제에서와는 다르게 「數量 → 價格」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우리는 『제2자본론』의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下에 있어 生産되는 完全商品과 같이, 生産되는 財貨의 總供給量이 「即刻」 「全量」 「最大價格」으로 販賣됨으로써 社會의 需要量으로 轉換되게 됨으로써 「數量」(供給量 = 需要量)의 價가 確定지워질 수 있는 條件 下에 있어서만 「數量 → 價格」이 成立되게 되며, …[임원택(1978, p. 240)].”

수량이 가격을 대신하는 불균형 조정은 케인즈 『一般理論』의 핵심이 되는데 이 점을 『第2資本論』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케인즈가 이렇듯 가격으로부터 수량으로 조정 변수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주목하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마샬의 영향으로 보인다 [임원택(1978, p. 110)].

지금까지 간단하게 약술한 세 개의 교환법칙에서는 투하노동과 효용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노동의 不等價交換을 설명한다. 즉 근원적인 필연으로서의 效用勞動量을 고려함으로써 세 번째 교환법칙이 나온다. 이것이 『제2자본론』의 획기적인 발견(Eureka)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價値論과 그 適用

다른 경제이론체계에서도 그러하듯이 價値論이 그 출발점이 된 것은 두남 선생의 이론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남 선생을 가치론을 필생의 목표로 삼아 어느 정도 완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 경제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고, 주로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價値論과 變動論의 관련성을 보기에 앞서 두남 선생이 기존 價格理論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왜 이러한 이론들이 자본주의에 적용되어 변동론까지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두남 선생 사고의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價格理論들의 位置

두남 선생의 가격이론에서는 단순한 단계에서 사물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하여 이를 복

잡한 단계로 적용시키는 방식의 탐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가격이론들을 단계별로 소개함으로써, 이론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평소 두남 선생이 강조하는바 ‘이것이냐 저것이냐’ (entweder-oder)라는 양자택일적 사고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sowohl-als-auch)라는 변증법적 사고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發展段階別로 적용되는 價格論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i) 物物交換: 이 단계는 재화와 재화가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단계로서, 두남 선생은 이 단계도 효용-노동 2원기준교환을 적용하여 설명되어야 하지만, 동일한 가치의 물건이 교환되는 등가교환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제본스의 한계효용가치론이나, 맑스의 투하노동가치론이나 어떤 이론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ii) 單純商品生産: 이 단계는 재화와 재화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환되는 단계로서, 두남 선생은 본질적으로 물물교환과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판매와 구매 시점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뵘바베르크와 마셜의 가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iii) 資本主義的 生産: 화폐가 선대되어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단계로서, 가격은 효용-노동 2원기준교환에 의한 不等價交換理論이 있어야만 설명가능하다고 보며, 마셜의 가격이론을 변용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을 통해 두남 선생은 기존의 가격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4.2. 價値論과 變動論

일반적으로 가치론을 응용하여, 화폐론, 경제변동 및 성장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두남 선생도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화폐에 대해서는 이미 교환법칙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變動論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어보겠다.⁽²⁾

두남 선생은 노동-효용 2원기준교환론을 경제변동론에 확대·적용시켜 현실경제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선 노동-효용 2원론하에서는 실제로 들어난 비용(투하노동량) 이상으로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비용 이상을 지불하려는 지배노동량이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부등가교환이라는 교환법칙을 상기해야 한다. 두남 선생은 부등가교환의 결과 얻어진 투하노동량 이상의 지배노동량이 剩餘價値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투하노동의 일부가 지불되지 않아 잉여가치가 발생한다는 맑스의 搾取說과

(2)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속제2자본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명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등가교환이 지속되려면 비용 이상을 지불하려는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요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결국 비용에 산입된 부가가치들인 임금이 아니라, 비용 이상 수취한 데서 발생하는 이윤이나 지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희소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이론적 편의상 논외로 한다면 이윤으로부터 충분한 추가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결국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남 선생은 고전과 시대의 프랑스 경제학자 시스몽디(Sismondi)로부터 제안된 時差分析과 맑스 및 슈페터에서 발견되는 單純再生産과 擴大再生産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가 제시될 수 있다.

一般的 過剩生産의 不可避性: 만약 경제가 동일한 규모로 반복되는 단순재생산에서는 前期의 이윤에서 투자되어 같은 양의 이윤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한 수요가 되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수요를 전기의 이윤으로부터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두남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과잉생산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的 恐慌의 週期的 性格의 神秘도 바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과 資本主義的 縮小再生産이 각각 갖고 있는 內部的 矛盾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에 관한 해명은 支配勞動價値論·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론·流通過程利潤 발생론과 자본주의적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貨幣資本 = 生産費 = 「유효수요」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원택(1992, p. 412)].”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성장하려면 충분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으며, 추가적 수요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 장치가 없는 경우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恐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두남은 대체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19세기에 주로 사용된 방법으로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帝國主義的 方法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학자로서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레닌(Lenin), 홉슨(Hobson) 등이 언급되고 있다.

둘째는 20세기 세계대공황기에 제안된 방식으로 케인즈적인 政府支出이다. 세금으로 징수하여 정부가 100% 확실히 지출하든, 아니면 정부채권으로 빚을 얻어 지출하든 정부 지출이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제는 現代 巨視經濟學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사실 상 과거 고전파 시대 맬더스가 제안했듯이 지주계층의 지대로부터 나오는 비생산적·사치적 소비가 과잉생산회피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하게 보인다.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에 대해서 두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Samuelson은 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를 국내시장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구매자」 「내적 시장」의 확대의 방편으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외에 있어서 시장의 확대를 폐기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는 2차대전 후, 국제국주의가 종말을 고한 후에, 중심자본주의제국의 소비재의 과잉생산을 처리하는 유효한 방편으로서 이용됨으로써 공황을 많이 완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예언자 Malthus, Sismondi, Hobson 등이 100년 전에 해놓았던 예언은 Keynes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원택(1992, p. 446)].”

셋째는 위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銀行의 信用에 의해 미래 발생할 소득을 현재화하는 방안이다.⁽³⁾ 이는 주로 슈페터에 의해 제안된 방안인데,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려는 은행가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을 개발한 혁신적 기업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 방안이다.

공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용과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외국시장의 진출 중에서 두남 선생은 정부지출의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제2자본론』과 『속제2자본론』 제목이 표방하듯이 맑스의 『자본론』과 동일한 문제를 물으면서도 그 답은 다른, 아니 맑스를 포괄하면서도 그를 극복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5. 맺음말: 杜南 經濟理論의 意義

두남 선생의 경제학을 가치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결국 (i) 效用-勞動 2元基準 交換, (ii)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支配勞動價值論, (iii) 투하노동량 이상의

(3) 맑스의 재생산 표식을 이용하여 일반적 과잉생산 가능성과 신용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유사한 연구는 Foley(1986)의 5장을 보면 된다. 이 연구에서 보듯이 두남의 이론 중 이 부분이 가장 현대 경제학 연구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치결정에 의한 不等價交換이라는 3가지 명제로 요약되며, 이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부족에 의한 일반적 과잉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經濟變動論의 기초이론이 된다. 두 남 선생의 경제이론을 학설사적으로 보면 스미스, 맬더스, 존 스튜어트 밀, 마샬, 케인즈에 이르는 그야말로 영국의 주류경제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한계주의자와 맑스경제학의 장점을 일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포괄적 이론 전개는 두 남 선생의 학문적 열정과 통합정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적들을 近代經濟學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근대경제학 자체가 가치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라는 物理學的 均衡概念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욱 더 실용적인 쪽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두 남 이론 자체의 기본 골격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는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점은 필자들의 이해도를 넘는 측면도 있어서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두 남 이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엄밀하고도 세밀한 價格論이 발달된 현재의 경제학 수준에서 두 남 선생의 가치론이 과연 적절한 작업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치론이 비록 가격론의 초보적 형태로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행동의 동기와 경제활동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본성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원론 이후 근대경제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2차대전 이후 경제이론의 발전에 있어 사무엘슨의 『經濟分析의 基礎(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5)』과 Hicks의 『價値와 資本(Value and Capital, 1939)』의 두 저서가 바탕이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발전의 배후에는 왈라스의 『純粹經濟學要論(Elements of Pure Economics, 1874)』이 있다. 왈라스의 책에서는 모든 경제 변수들이 상호 의존적이다. 어떤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를 지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각 변수들이 결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 아래서 결정된다. 단지 이 상호관계를 결정하는 경제적 여건이 다를 뿐이다.

이에 비해, 두 남 선생의 價値論은 일단 재화의 속성에서 출발하여 經濟活動의 因果關係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제2자본론』의 가치체계에 두 주춧돌이 되는 效用과 投下勞動의 개념은 경제적인 가치개념을 넘어선 哲學的인 것으로서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근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우리의 경제활동에 상존해 있는 재화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가치와 여기에 인간이 부여한 심리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이 가치

는 항구적인 것들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구적인 요소로부터 출발하여 가격 이론을 전개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두남 선생의 가치론은 근본적 차원에서 가격론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2자본론』의 가치체계는 고전파의 自然價格의 개념과 상통한다. 다만, 고전파의 생산비에 입각한 자연가격 개념에 추가하여, 인간의 心理的인 要因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남 선생의 작업은 영국 신고전파의 창시자 마샬의 작업에 비견될 수 있다. 즉 마샬의 경제원론이 가치의 양날이 되는 수요와 공급을 한정된 기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제2자본론』은 효용과 투하노동의 두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한 장기에 있어서의 가격체계의 확립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價格論의 결과를 살펴볼 때, 결국 『제2자본론』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리카도(neo-Ricardian)학파의 泰斗 스라파(Piero Sraffa)의 가격이론에 가장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스라파의 이론체계는 『제2자본론』에서 설정되고 있는 바 물물교환단계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단계까지의 물량의 순환체계를 묘사한 후,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가치체계까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체계의 배후에 있는 임금-이윤의 상반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하였으며, 투하노동시간에 추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가 支配勞動量으로 귀결됨을 보이고 있다.

스라파의 가격이론도 장기균형상태를 분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신고전파의 주류경제학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近代 理論經濟學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비해서 표준 모형 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경제 모형으로서의 그 유용성의 결여되고 있는데 비해, 그다지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업적도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2자본론』의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왈라스적인 상호의존적·동시적인 가격결정 체계로부터 벗어나 고전파적인 근원적인 가치에 준거한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 나머지 그 유용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깊이 깔려있는 철학적 가치관을 『제2자본론』은 갈파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점차 디지털化되어 가는 우리의 경제 환경 속에서 두남 선생의 경제관은 우리에게 경제의 근본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평소 杜南 선생께서 “漢字가 國家競爭力이다”라고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근본에 대한 탐구가 결국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두남선생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88

팩스: (02)886-4231

E-mail: shk@plaza.snu.ac.kr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9

팩스: (02)886-4231

E-mail: hongk@snu.ac.kr

參 考 文 獻

김신행(1988): “경쟁적인 분배체제와 부족한 방정식,” 두남 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사회과학의 제문제, 법문사.

임원택(1978): 『제2자본론: 경제학비판』, 서울, 일조각.

_____ (1992): 『속제2자본론』,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홍기현(2002): “스라파 장기균형가격이론의 성과와 한계,” 『경제논집』, 41. 4, 381-401.

Foley, Duncan(1986): *Understanding Capital: Marx's Economic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icks, J. R.(1939): *Value and Capital: An Inquiry into Some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Samuelson(1945):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raffa, Piero(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